

기고

아, 호남이여!

김 세 곤
호남역사연구원장

“나는 나라로부터 녹봉을 받은 적이 없으니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날에 단 한 사람의 선비도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하지 않으리오. 나는 차마 양심을 저버리지 못하여 영영 잠들려하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1910년 9월 한일병합 소식을 들은 구례의 선비 매천 황현은 이런 유서와 함께 절명시 4수를 쓰고 독약을 마셨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군사 7만 명을 이끌고 서울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선조임금이 서울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만 전라도로 내려오고 말았다. 이광은 군사를 다시 모아 2차 출정하였으나 전라·충청의 5만 군사는 용인

전투에서 1600명의 왜군에게 패배하여 흘어졌다. 이후 그는 전라도에서 꼼짝 안 하고 사태 관망만 하고 있었다.

이런 전라도 관찰사의 무능에 분노한 장성의 선비 정운룡과 광주의 박종정, 유사경은 의주에 피난중인 선조에게 이광을 갈아치우라고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을 읽은 선조는 이광을 파직시키고 그 대신 광주목사 권율을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호남의 선비들은 의롭다. 황현은 망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수치스러워 자결하였고, 정운룡 등은 지방 수령의 무능을 증오하여 관찰사를 탄핵한 것이다.

의(義)를 주장한 이는 중국 전국시대의 맹자(BC 385~304)이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인간은 원래 인의예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즉 은지심)이 인(仁)의 단초이고 수치와 증오의 마음(수오지심)이 의(義)의 단초라고 하였다. 수치는 ‘이렇게 사는 내가 부끄럽다’는 뜻이고, 증오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의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맹자’ 책 첫머리를 읽어보면, 양혜왕이 맹자에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었으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나이까?”라고 말한다. 그런데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이면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단지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꾸한다.

맹자는 양혜왕을 만나서 한 첫 마디가 약육강식의 시대에 전혀 통할 리 없는 인의였으나, 그는 정말 대단한 이상주의자요 정치사상가이다.

‘맹자’ 책은 민본주의의 핵심이다. 맹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도 민심이 등을 돌리면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하는 혁명론을 설파하였다. 혁명론을 끔찍 정도로 믿었던 책은 정몽주로부터 얻은 ‘맹자’였다.

잘 알다시피 호남은 의향(義鄉)이다. 호남 사람의 DNA 속에는 의가 들어 있다. 호남 사람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기하였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살펴보자. 7도

가 외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오직 전라도 만이 운전하였을 때, 고경명과 김천일, 최경희·고종후와 장 윤·강희열, 임계영과 김덕령, 그리고 김경수·김제민·변사정·박광전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호남 선비들이 의를 끊어, 증오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의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죽지 말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도 다시 일어난 이들이 바로 호남 사람들이다. 또한 위기가 닥치면 더 뚱치게 되어 있다. 궁극통(窮屈通)이다.

적힌 ‘야무호남시무국가(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는 그냥 빙발이 아니다.

이런 호남의 의기(義氣)는 병자호란,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모두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호남 인들의 의침이요 행동이었다.

그런데 지금 호남은 위기이다. 호남 배제와 폄하가 확산되고 있고, 정체성(正體性)과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

일배 회원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 시신을 ‘흉어택배’라고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는가 하면,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호남하면 부정, 반대, 비판, 과거집착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정체성 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취직 준비하는 청년들이 본적을 뜯기는 일까지 생겼다. 호남 사람이라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기죽지 말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도 다시 일어난 이들이 바로 호남 사람들이다. 또한 위기가 닥치면 더 뚱치게 되어 있다. 궁극통(窮屈通)이다.

법조칼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단상

김 미 은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솔로몬은 ‘신이 주었다’고 할 정도로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일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는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 준 재판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 한 아 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이 칼을 주면서 “살아 있는 아이나 둘로 잘라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령하였고, 결론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 여인을 진짜 엄마로 판명하였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판명될 문제이지만 그러한 과학적 방법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빛난 재판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하다 보면, 종종 부딪치는 문제가 ‘상반된 진술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유전자검사, 지문감식, 문서 및 필적 감정, 모바일 또는 디스크 분석, 통화 내역·계좌 조회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개발되어 있어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서 해결되는 사건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가지고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이 각자 진술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정황에 맞지 않고, 전후 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퍼즐 조각이 어긋나게 되면 비교적 쉽게 어느 한쪽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양쪽 모두 퍼즐 조각이 무리 없이 잘 맞춰지고 마지막 진실 공방의 핵심상황에 대한 퍼즐 조각이 이쪽 말에 따더라도 저쪽 말에 따라도 별 무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인 한 남자가 채권자인 남자를 계속 괴롭다가 어떤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해 계단으로 도망갔고 채권자는 그런 채무자를 바싹 뒤쫓았다가 채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채권자가 뒤에서 밀었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혼자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단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CCTV도 없는 끈입니다.

평소 친구 사이인 두 사람에게 밤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여자를 제우려고 모렐까지 가게 되었는데, 모렐 방안에서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여자,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남자, 모렐까지 갔던 상황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모렐 방안에서의 상황만 달리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서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사정으로 대금란을 공란으로 두면서도 대금란까지 포함하여 각자 도장을 찍었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의 허락을 얻어 대금란을 보충하였다는 매도인,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매수인, 이 두 사람도 역시 허락 여부만 달리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

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이 내린’ 솔로몬의 지혜를 빌릴 수도 없고, 또 사건관계인에게 솔로몬과 같은 단호한 시辱을 내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진술의 행간에 숨어 있는 심리적 움직임을 파악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진술분석기법’, 비인어적 행동반응, 언어·음성적 특징 및 감정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대상자의 심리적 움직임을 추론하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분석하는 ‘행동분석기법’을 비롯하여 진술할 때의 신체적 변화를 포착하는 ‘거짓말탐지기검사’ 및 ‘뇌파분석’ 등의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도 다양한 분석기법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양심일 것이기에,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있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글꽃마리, 물잔디, 꽃창포, 끈끈이주걱 등 7종이 확인됐다고 한다.

무등산은 한해 수백만 명이 찾는 호남의 영산이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 탑방객의 수자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가급적 생겨난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지키는 게 최선이기에 어찌 보면 멸종위기 동·식물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 아닐 수 없다. 탑방객의 손길로부터 멸종위기종을 자연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보호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조사 중간집계결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국내 미기록종, 한반도 고유종 등 다수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물은 으름난초가 발견됐고 포유류는 수달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4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또 조류는 드워리, 새매, 붉은배새매 등 7종이 목격됐다고 한다. 곤충은 쌍코리부전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고유 식물종인 옥녀꽃대, 흰랑비꽃, 소나무, 활미밀망, 이스라리 등 13종도 발견됐다. 희귀식물로는 구슬개고사리, 변산바람꽃, 텔조장나무, 등산로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하고, 동·식물에 직접 위해가 되는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 또 탑방객 스스로가 자연 보호에 적극 동참하도록 충분한 계도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에 임습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다시 한 번 환경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대낮에도 도심은 어두컴컴한 밤처럼 변했고, 극심한 미세먼지에서도 숨을 멎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코와 목이 따끔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미세먼지의 폐해는 상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폐 질환자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임산부나 태아에게도 매우 좋지 않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상청 등은 앞으로 항상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큰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의 공동노력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관측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유사시 즉각 이를 알려 국민의 원천적인 행복조건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건강을 크게 위협하지만 출현 시간이나 농도를 미리 알

로 공공기관의 가장 주된 책무다

無等鼓

영화 보는 내내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다. 첫 오디션 현장. 악기를 연주해 본 적 있나는 선생님들의 질문에 아이는 ‘바이올린’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정작 그가 들려주는 건 계이름 한 두 개 정도는 대사다. “음악은 아이들에게 규범과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열심히 노력하게 할 것이며 늘 결과가 좋지 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최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국판 엘 시스테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 지역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통

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엘 시스테마’는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광주에도 김유정씨가 이끄는 다문화 M오케스트라, 남구문화예관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등 많은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활동중이다. 꿈을 찾는 아이들, 아이들의 꿈을 함께 꾸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은 세상 어느 음악보다 감동적이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가슴이 온화해지는 영화다. 함께 누는 삶에 대해, 음악의 따뜻한 힘에 대해 느끼고 싶다면 놓치지 말 것.

/김미은 문화부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무등산 주상절리 세계화 되려면

진 선 기
광주시의원

8700만년 전부터 8500만년까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됐다. 주상절리대 전체 면적은 최소 11㎢ 이상으로, 주상절리대의 단일 절리면의 크기가 최대 9m까지 세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도심에 위치하고 해발 고도가 750m 이상 되는 내륙 산상에 위치해 매우 독창적이며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등산 주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750m 이상 산상에 위치해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충분하다. 주상절리대의 냉각역사와 과거 10만년 동안 지구 기후변화를 알 수 있어 세계적으로 학술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해발 1090m의 서석대는 200여개의 5각 내지 6각 기둥으로 이뤄졌으며 970m의 입석대는 120m 규모다.

주상절리 지형은 동결용해가 반복되는 기계적 풍화의 산물로, 자연성과 희귀성 측면에서 1등급의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 세계자연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연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나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또 생명체의 기록, 지형의 발달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적 또는 자연 지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사례여야 한다는 점에서 무등산은 타월한 보존적 가치로서 전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등산 주상절리 리가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절리대와 암괴지형은 생성과정이 학술적으로 중요하고 지형학적 가치가 우수하다는게 지질학자의 평가다.

무등산 자연지형의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술적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질관광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질공원 탑방객 센터와 지질평소 안내관을 설치해야 하는만큼 이런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지질공원 관리 전담기구를 개편 운영하면서 지역주민, 업체와의 협력사업 체결 등 지질공원 운영 세부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질 지형 유산보고서, 운영 관리계획서, 자체평가표, 마케팅전략, 교육프로그램 및 지질관광 개발 방안 등 충실히 보고서 제출도 충실히 마련해 국지질공원으로 지정되도록 한 다음 세계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취재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환하게 웃던 희망나무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모습, 재능 기부 현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를 울렸던 광주아육원 오케스트라의 연주 장면도 떠올랐다. 음악가를 꿈꾸는 10대 소녀가 플루트로 들려주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참석자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용재 오닐은 자주 눈물을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div